

黃帝內經中 濕證의 病理에 關한 文獻的 考察

全英秀, 金聖勳, 林樂哲*

I. 緒 論

濕은 六氣中의 하나로서 空氣中에 水分이 過多하거나 濕度가 太濃한 現狀이나¹⁾ 水濕이 停滯瘀積한 症候로²⁾ 外濕과 人體에서 水液代謝過程에서 發生되는 內濕이 各種病證을 發生시킨다는 점에서 重要病因으로 認識되고 있다.³⁾

濕이 人體에 侵入하여 나타내는 主要症狀은 身重, 四肢困倦, 頭重如과 등으로 經絡關節을 侵入하면 痺證을 誘發하고, 脾胃를 侵犯하면 食慾不振, 消化不良, 胸悶, 腹脹, 大便稀薄, 小便短少 등의 症狀을 發生시키며, 全身 또는 局所에 停滯되면 水腫, 脚氣, 白帶, 濕疹 등의 症狀을 招來하는 바⁴⁾ 全身 또는 局所에 鬱血現狀⁵⁾을 示唆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濕은 燥와 함께 水分代謝를 調節한다는 점에서 서로 待對的 關係⁶⁾가 있으니 周⁷⁾는 “燥濕同形 燥極似濕 濕極似燥, 燥濕同病 燥中有濕 濕中有燥”라 하여 燥와 濕이 서로 相對的이면서도 同源의 關係가 있다고 하였으며, 石⁸⁾은 “燥濕은 先天의 體이고 水火는 後天의 燥濕이 變化한 것이며 燥濕은 寒熱이 化한 것이다.”라고 하여 燥濕의 相關性을 記하였고, 沙王書⁹⁾는 <醫原記略>에서 “濕之爲病最多”라 하면서 濕病證治를 述하였으며, 葉¹⁰⁾은 주로 內濕의 病理에 대해 言及하였고, 張¹¹⁾은 濕證을 濕熱과 寒濕으로 나누어 說明하였다. 이와같이 歷代醫家들도 濕을 重要病因으로 取扱하였고 주로 內經中에 나타난 濕과 關聯된 文句를 引用하면서 說明하고 있음에도 不具하고 아직까지 黃帝內經에 나타난 濕과 關聯된 文句를 綜合的으로 考察한 文獻은 거의 없다.

이에 著者는 濕에 關한 歷代醫家說과 比較考察하기에 앞서 《黃帝內經》에 나타난 濕과 關聯된 모든 文句를 찾아 濕의 概念, 病理 및 病症 등을 中心으로 考察하였던 바 얻은 바가 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生氣通天論>¹²⁾

- 因於濕, 首如裹, 濕熱不攘, 大筋繆短, 小筋弛長, 繆短爲拘, 弛長爲痿
- 汗出見濕, 乃生痤癩
- 秋傷於濕, 上逆而咳, 發爲痿厥

<陰陽應象大論>¹³⁾

- 濕勝則濡瀉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 重陰必陽…故曰…秋傷於濕, 冬生咳嗽
- 中央生濕, 濕生土…在天爲濕, 在地爲土, 在臟爲脾…濕傷肉
- 地之濕氣感則害皮肉筋脈
- 〈宣明五氣論〉¹⁴⁾
- 脾惡濕
- 〈通評虛實論〉¹⁵⁾
- 臛跛, 寒風濕之病也
- 〈太陰陽明論〉¹⁶⁾
- 陰者地氣也, 主內…陰受濕氣, 故陰氣從足上行至頭, 而下行循臂至指端…陰病者下行極而上, 故…傷於濕者, 下先受之
- 〈痺論〉¹⁷⁾
- 風寒濕三氣雜至, 合而爲痺…濕氣勝者爲着痺也
- 痺者, 各以其時, 重感於風寒濕之氣也
- 榮者…衛者…逆其氣則病…不與風寒濕氣合, 故不爲痺
- 〈痿論〉¹⁸⁾
- 有漸於濕, 以水爲事, 若有所留, 居處相濕, 肌肉濡潰, 痺而不仁, 發爲肉痿…得之濕地也
- 〈調經論〉¹⁹⁾
- 寒濕之中人也, 皮膚不收, 肌肉堅緊, 榮血泣, 衛氣去, 故曰虛, 虛者, 聶辟氣不足, 按之, 則氣足以溫之, 故快然而不痛
- 〈氣交變大論〉²⁰⁾
- 歲土太過, 雨濕流行, 腎水受邪, 民病腹痛, 清厥, 意不樂, 體重煩悶…甚則肌肉痿, 足痿不收行, 善癢, 脚下痛, 飲發中滿, 食減, 四肢不舉…病腹滿溇泄, 腸鳴
- 歲水太過…濕氣變物, 病反腹滿, 腸鳴溇泄, 食不化
- 歲火不及…復則埃鬱…病驚漇腹滿, 飲食不下, 寒中, 腸鳴泄注, 腹痛暴擊痿痺, 足不任身
- 歲水不及, 濕乃大行…民病腹滿, 身重溇泄, 寒瘍流水, 腰股痛發, 鬲膈膝不便煩悶, 足痿, 清厥, 脚下痛, 甚則附腫
- 〈五常政大論〉²¹⁾
- 太陽司天, 寒氣下臨…濕氣變物, 水飲內蓄, 中滿不食, 皮𡇗肉苛, 筋脈不利, 甚則半腫, 身後癱
- 太陰司天, 濕氣下臨, 腎氣上從…胸中不利, 陰痿氣大衰, 而不起不用, 當其時, 反腰椎痛, 動轉不便也, 厥逆
- 〈六元正紀大論〉²²⁾
- 太陽司天之政…民病寒濕, 發肌肉萎, 足痿不收, 濡瀉血溢…四之氣, 風濕交爭…民病大熱少氣, 肌肉萎, 足痿, 注下赤白
- 陽明司天之政…初之氣…其病中熱脹, 面目浮腫, 善眠, 𡇗衄, 噎欠, 嘔, 小便黃赤, 甚則淋
- 少陽司天之政…二之氣, 火反鬱, 風不勝濕…其病熱鬱於上, 咳逆嘔吐, 瘡發於中, 噎不利, 頭痛身熱, 昏𡇗膿瘡…四之氣…其病滿, 身重
- 太陰司天之政…民病寒濕腹滿, 身𡇗憤, 附腫痞逆, 寒厥拘急初之氣…風濕相薄…民病血溢, 筋絡拘強, 關節不利, 身重筋痿 二之氣…濕蒸相薄…溫厲大行 三之氣…感於寒濕, 則民病身重, 附腫, 胸腹滿 四之氣…辱蒸化…蒸熱相薄…民病腠理,

血暴溢，虐，心腹滿熱，臃脹，甚則附腫

- 少陰司天之政…四之氣，辱暑至…民病寒熱，噎乾，黃痺，口衄，飲發
- 厥陰司天之政…四之氣，辱暑濕熱相薄…民病黃痺而為附腫
- 太陰所至為濕生…為積飲否隔…為穢滿…為中滿霍亂吐下…為重附腫…病之常也
- 濕勝則濡泄，甚則水閉附腫

〈至真要大論〉²³⁾

- 歲太陰在泉…濕淫所勝…民病食積，心痛，耳聾，渾渾惇惇，噎腫喉痺，陰病見血，少腹痛腫，不得小便，病衝頭痛，目似脫，項似拔，腰似折，痞不可以回，腫如結，喘如別
- 太陰司天，濕淫所勝…附腫，骨痛，陰痺，陰痺者，按之不得，腰脊頭項痛，時眩，大便難，陰氣不用，飢不欲食，咳唾則有血，心如懸，病本于腎
- 太陰之勝，火氣內鬱，瘡瘍於中，流散於外，病在肢脇，甚則心痛，熱格頭痛，喉痺，項強，獨勝則濕氣內鬱，寒迫下焦，痛留項，互引眉間，胃滿…少腹滿，腰椎重強，內不便，善注泄，足下溫，頭重，足脛附腫，飲發於中，附腫於上
- 諸濕腫滿皆屬于脾 諸瘕項強皆屬于濕

〈小鍼解篇〉²⁴⁾

- 清氣在下者，言清濕地氣之中人也，必從足始，故曰清氣在下也

〈邪氣臟腑病形篇〉²⁵⁾

- 身半以下者，濕中之也

〈五癘津液別篇〉²⁶⁾

- 天寒則腠理閉，氣濕不行，水下留於膀胱，則為溺與氣

〈賊風篇〉²⁷⁾

- 嘗有所傷於濕氣，藏於血脈之中，分肉之間，久留而不去…其開而遇風寒，則血氣凝結，與故邪相襲，則為寒痺

〈百病始生篇〉²⁸⁾

- 三部之氣各不同…清濕襲虛，則病起於下

〈大惑論〉²⁹⁾

- 皮膚濕，分肉不解，行遲

III. 總括 및 考案

《內經》에 表現된 濕의 性狀을 살펴보면 “中央生濕，濕生土，在天爲濕，在地爲土，在臟爲脾”라 하여 五行의 基本原理를 바탕으로 中央, 土, 脾를 聯關하여 觀察하고 있다.

〈小鍼解篇〉에서 “清氣在下”라고 한 것은 “清濕地氣之中人”을 말한 것으로서 濕은 冷濕한 地氣로 觀察하였으며, “中央者, 其地平以濕”으로 地形的인 環境과의 聯關을 말하고 있다. 또한 〈六元正紀大論〉에 “太陰所至濕生”으로 表現된 것은 五運六氣病理로서 濕의 現狀을 觀察하여 風寒暑濕燥火의 六氣中 濕이 盛하는 時期를 말하고 있다. 즉 이는 長夏(陰曆六月: 大暑, 立秋, 處暑, 白露)에 濕氣가 盛하는 것을 觀察한 것이다. “陰者地氣也…陰病者”라고 한 것은 濕氣는 地氣이며 곧 陰氣이고, “重陰必陽, 秋傷於濕”이라 한 것은 濕氣가 陰邪로 作用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또한 “清氣在下” “下先受之” “身半以下者” “必從足始” “傷下” 등의 表現은 濕氣가 下部地氣로서 下滯하는 性質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濕의 致病에 대하여 살펴보면 〈太陰陽明篇〉에 “陰者地氣也, 陰受濕氣, 故陰氣從足上行

至頭，而下行循臂至指端，陰病者下行極而上，故傷於濕者，下先受之”라 하였는데 이는 濕氣가 陰氣로서 下半身에서 上府로 轉移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를 “下行極而上”으로 表現하고 있으며 이는 上述한 “身半以下者濕中之” “清濕則傷下” “清氣在下者，言清濕地氣之中人也，必從足始” 등의 表現과 더불어 濕氣가 下部의 疾患을 多發하는 것을 觀察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陰陽應象大論>에서 “地之濕氣感則害皮肉筋脈”이라 하였으니 “濕傷肉”의 表現과 같이 檢討하면 濕氣가 筋肉，血脈의 病變을 多發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棋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다만 <調經論>에서 “寒濕之中人也，皮膚不收，肌肉堅緊，榮血泣，衛氣去，故曰虛，虛者，聶辟氣不足”의 表現과 <賊風篇>의 “嘗有所傷於濕氣，藏於血脈之中，分肉之間，久留而不去…其開而遇風寒，則血氣凝結” 또한 <大惑論>의 “皮膚濕，分肉不解”의 表現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濕氣는 人體의 下部를 주로 侵害하며 “血脈之中”이나 “分肉之間”에 藏하여 榮衛의 障礙를 招來하는데 이는 虛證에 속하는 것으로 觀察하였고, 또한 주로 皮肉筋脈을 傷形하는 바 筋肉，血脈，關節의 病變을 의심할 수 있다.

濕이 發現하는 症狀과 關聯하여 “脾惡濕”의 現狀을 觀察하면 脾土는 그 屬性을 濕으로 把握하였으므로 脾臟과 濕은 密接한 關聯이 있으니 즉 脾의 機能과 濕의 太過，不足이 어떤 關聯性을 갖는 것으로 要約된다. “脾惡濕”의 現狀을 “脾主肌肉”하고 “濕傷肉”하는 觀察로도 理解할 수 있으나 脾와 表裏關係에 있는 胃의 機能上 水穀의 清濁分別과 運化機能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

<至眞要大論>에 “諸濕腫滿皆屬于脾” “諸瘕項強皆屬于濕”라고 하였는데 이는 濕證의 提綱을 말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 逆의 表現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바 즉 脾는 諸濕腫滿을 發現할 수 있으며 濕은 “諸瘕項強”을 發現할 수 있는 것으로 外濕과 內濕으로 觀察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近接된 表現으로는 同篇에 “從內之外者” “從外之內者”를 들 수 있으나 명확한 根據는 없다. 한편 이를 上述한 “脾惡習”의 現狀과 關聯지어 생각하면 脾胃의 清濁分別과 運化機能이 “諸濕腫滿”의 發現과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으며, 또 攝取하는 飲食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을 것으로 馬 등^{30,31)}은 “多飲酒漿乳酪所致”로 內濕이 發生하는 것으로 觀察하였다.

內經에 表現된 濕의 症狀으로는 首如如，拘攣，痿痺，咳，肉痿，痺，濡瀉，水閉附腫，積飲否隔，卒滿，中滿霍亂吐下，重附腫 등의 症으로 나타나 있다. 內經에 技術된 各症의 發病機轉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 內在한 意味로서 把握할 수 밖에 없는 바 “首如裹”는 “因於濕”이라 하였으나 同篇前文에 “陽氣者…衛外者也”의 表現으로 미루어 濕이 陽氣를 傷한 것으로 여겨지며, “拘攣”는 “濕熱不攘”으로 發現하는 것으로 張 등^{32,33)}은 “濕鬱成熱”로 觀察하였으며 이는 拘攣不伸，痿弱無力을 말한다. “痿痺”은 “汗出見濕”으로 表現하고 있으며, 張³⁴⁾은 역시 “濕熱鬱于皮膚之間”으로 觀察하였다. “咳”는 “秋傷於濕，上逆而咳”라 하고 “冬生咳嗽”라 하였으며 이는 濕邪가 體內에 잠복하였다가 冬의 寒氣에 復感한 것으로서 “濕鬱成熱”로 上逆하여 肺金을 傷한 것으로 張 등^{35,36)}은 觀察하였다. 以上에서의 各症은 濕이 熱化한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肉痿”는 <痿論>에 “有漸於濕，以水爲事，若有所留，居處相濕，肌肉濡漬，痺而不仁，發爲肉痿”라 하였으나 上述한 “濕熱不攘…拘，攣”와 同篇의 “脾氣熱，則胃乾而渴，肌肉不仁，發爲肉痿”의 表現에 비추어 濕이 熱化하거나 濕과 熱이 兼한 狀態로 생각된다. “痺”는 “風寒濕三氣雜至，合而爲痺”라 하였고, 또 “各以其時，重感於風寒濕”이라 하여 風寒濕의 三氣가 그 病因이나 邪氣가 體內에 잠복한 후 다른 邪氣에 다시 重感한 것으로서 그 病症이 長期間에 걸쳐 發現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濕氣勝者爲着痺”라 하였고, 張³⁷⁾은 “濕流關節故爲流着之痺”라 하였고, 張³⁸⁾은 “着痺者 肢體重着不移 或爲疼痛 或爲頑木不仁 濕從土

化病多發於肌肉”이라 하였다. 內經同篇에서 “榮…衛…不與風寒濕氣合, 故不爲痺”라 하여 榮衛의 理論이 活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反面 <通評虛實篇>에 “蹠跛, 風寒濕之病”이라 하였는데 이는 足偏廢로서 運動의 障礙를 말하는 것으로 痺와 같은 脈絡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濡瀉”는 “濕勝” “濕客下焦”로 內經에서 記述하였으며, 張 등^{39, 40)}은 濕이 勝하여 脾胃가 傷한 것으로 理解하였고, “甚則水閉附腫”을 張⁴¹⁾은 “水道不利而肉腫脹 按之如泥不起”라 하였는데 이것은 濕과 脾臟 및 水氣의 相關性이 密接한 것으로 생각된다. “積飲否隔, 穡滿, 中滿霍亂吐下, 重附腫”은 六氣病理로서 觀察하여 “太陰所至爲濕生”이라 하였고, 張⁴²⁾은 “脾多濕滯, 太陰主脾, 病在中焦, 土濕傷脾, 土氣濕滯”로 表現하여 脾病으로 觀察하였다.

五運六氣病理로서 濕證의 病理를 觀察한 部分을 살펴보면, (1) “腹痛, 清厥意不樂, 體重煩滿”은 <藏氣法時論>에 “(腎)虛則胸中痛, 大腹小腹痛, 清厥意不樂”이라 하였으며, <示從容論>에 “肝虛, 腎虛, 脾虛皆令人體重煩滿”이라 하였다. (2) “肌肉萎, 足痿, 善癢, 腳下痛, 四肢不舉”는 <藏氣法時論>에 “脾病者身重, 善肌肉萎, 足不收行, 善癢, 腳下痛”이라 하였고, <玉機眞藏論>에 “(脾)太過則令人四肢不舉”라 하였다. (3) “腹滿, 腸鳴, 飧泄”은 <藏氣法時論>에 “(脾)虛則腹滿, 腸鳴, 飧泄, 食不化”라 하였다. (4) “耳聾, 渾渾惛惛, 噎腫, 喉痺”는 <經脈篇>에 “三焦手少陽之脈…是動則病耳聾, 渾渾惛惛, 噎腫, 喉痺”라 하였으며, 또 “少腹痛腫, 不得小便”은 <四時氣篇>에 “邪在三焦”라 하였다. (5) “病衝頭痛, 目似脫, 項似拔, 腰似折, 痞不可以回, 鬲如結, 腦如別”은 <經脈篇>에 “膀胱足太陽之脈…是動則病”으로 表現하였다. (6) “附腫, 骨痛, 陰痺…病本于腎”이라 하고, <五邪篇>에 “邪在腎則病骨痛, 陰痺”라 하였다. (7) “濕氣變物, 水飲內蓄, 中滿不食, 皮窘肉苛, 筋脈不利, 甚則附腫, 身後癱”이라 하였다.

理想의 內容을 綜合하여 보면 濕은 脾, 腎, 三焦, 膀胱을 侵害하여 腎, 三焦, 膀胱, 脾의 病變을 誘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濕氣는 “水飲”에 作用하여 內蓄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上述한 “積飲”과 같이 생각하면 濕은 水氣에 作用하여 體內에 水飲을 形成하는 過程에서 脾와 聯關性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濕은 다른 邪氣와 結合하는데 《內經》에서는 “寒濕合德” “風濕交爭” “風濕相薄” “濕蒸相薄” “蒸熱相薄” “辱暑濕熱相薄” “燥濕” “暑濕” 등의 表現을 使用하여 觀察하였으나 寒濕, 風濕, 濕熱로 要約할 수 있다. 특기한 것은 “濕蒸相薄”으로 “溫厲大行”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傳染性疾患을 觀察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內經》에서는 燥濕을 表現하고 있으나 <五常政大論>에 “陽明在泉, 濕毒不生” “太陰在泉, 燥毒不生”이라 하여 上半된 見解로 생각된다. 六氣病理를 適用하여 燥濕의 觀察이 可能하다 하더라도 人體內에서 發現되는 過程에서는 成立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病滿, 身重”은 濕證으로 생각할 수 있다. 尹⁴³⁾이 風濕, 寒濕, 濕熱證을 寒化, 熱化로 觀察한 것은 濕의 性을 잘 理解할 수 있는 表現이다. 그러나 各證은 그 症狀의 複雜多端함이나 同一한 傾向을 지닌 症狀의 發現으로 그 區分은 까다로운 것으로 더욱 研究가 進行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IV. 結 論

黃帝內經에 나타난 濕의 概念, 病理 및 病症을 살펴보았던 바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內經에 나타난 濕은 季節의 으로 長夏에 盛하는 邪氣로서 重濁粘滯下重하는 特性이 있으며 人體內에서는 水液代謝過程中에 發生되는 痰飲, 水, 津液 등까지를 包括하는 概念으로 볼 수 있다.
2. 濕의 病理는 自然界의 外濕과 水液代謝를 主管하는 脾, 肺, 腎 및 三焦 등에 의한 氣化作用의 失調로 氣機阻滯에 의해 各種 症狀을 發生하는 것으로 思慮된다.
3. 濕은 他五氣와도 複合되어 “濕熱, 寒濕, 風濕, 風寒濕, 暑濕” 등이 發生될 수 있으며 症狀은 “頭重, 身重, 拘攣不伸, 痿弱無力, 痲痺, 痺而不仁, 濡瀉, 中滿, 霍亂, 吐下, 跗腫, 水腫” 등으로 나타났다.
4. 內濕證을 示唆하는 文句는 <經脈別論>의 “飲入于胃 遊溢精氣 脾氣散精 上注于肺” <至真要大論>의 “諸濕腫滿皆屬于脾” <陰陽應象大論>의 “濕勝則濡泄” 및 <脈要精微大論>의 “中盛臟滿…是中氣之濕也” 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

後 註

1. 醫藥衛生: 中醫學入門, 香港, 1974, p. 75.
2.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學基礎, 商務印書館, 1979, p. 105.
3. 宋鷺冰: 中醫病因病機學, 1987, p. 83.
4. 上海中醫學院編: 上揭書, p. 106.
5. 蔡陸仙: 中國醫藥匯海, 서울, 成輔社, 卷一, 1976, p. 312.
6.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1983, p. 34.
7. 周學海: 讀醫隨筆, 江蘇科技, 1983, pp. 100-102.
8. 石壽棠: 醫原, 江蘇科技, 1983, pp. 91-93.
9. 沙王書: 醫原記略, 王新華: 中醫歷代醫論選, 江蘇科技, 1980, p. 483.
10. 葉桂: 臨證指南醫案, 商務印書館, 1976, p. 350.
11. 張介賓: 類經, 서울, 慶熙醫大漢醫學部, 1965, pp. 574-576.
12. 洪元植編: 精交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 14.
13. 洪元植編: 上揭書, p. 18.
14. 洪元植編: 上揭書, p. 51.
15. 洪元植編: 上揭書, p. 59.
16. 洪元植編: 上揭書, p. 62.
17. 洪元植編: 上揭書, p. 86.
18. 洪元植編: 上揭書, p. 88.
19. 洪元植編: 上揭書, p. 117.
20. 洪元植編: 上揭書, p. 137.
21. 洪元植編: 上揭書, p. 142.
22. 洪元植編: 上揭書, p. 149.
23. 洪元植編: 上揭書, p. 177.
24. 洪元植編: 上揭書, p. 211.
25. 洪元植編: 上揭書, p. 213.
26. 洪元植編: 上揭書, p. 273.
27. 洪元植編: 上揭書, p. 305.

28. 洪元植編: 上揭書, p. 318.
29. 洪元植編: 上揭書, p. 345.
30. 馬元臺, 張隱庵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서울, 成輔社, 1975, p. 25.
31. 張介賓: 上揭書, p. 269.
32. 馬元臺, 張隱庵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서울, 成輔社, 1975, p. 24.
33. 張介賓: 上揭書, p. 270.
34. 馬元臺, 張隱庵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서울, 成輔社, 1975, p. 26.
35. 馬元臺, 張隱庵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서울, 成輔社, 1975, pp. 31-32.
36. 張介賓: 上揭書, pp. 272-273.
37. 馬元臺, 張隱庵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서울, 成輔社, 1975, p. 47.
38. 張介賓: 上揭書, p. 37.
39. 張介賓: 上揭書, p. 615.
40. 馬元臺, 張隱庵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서울, 成輔社, 1975, p. 663.
41. 張介賓: 上揭書, p. 614.
42. 張介賓: 上揭書, p. 615.
43.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1983, p. 34.

參 考 文 獻

1.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1983.
2. 洪元植編: 精交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3. 馬元臺, 張隱庵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서울, 成輔社, 1975.
4. 沙王書: 醫原記略, 王新華: 中醫歷代醫論選, 江蘇科技, 1980.
5.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學基礎, 商務印書館, 1979.
6. 石壽棠: 醫原, 江蘇科技, 1983.
7. 葉桂: 臨證指南醫案, 商務印書館, 1976.
8. 宋鷺水: 中醫病因病機學, 1987.
9. 醫藥衛生: 中醫學入門, 香港, 1974.
10. 張介賓: 類經, 서울, 慶熙醫大漢醫學部, 1965.
11. 周學海: 讀醫隨筆, 江蘇科技, 1983.
12. 蔡陸仙: 中國醫藥匯海, 서울, 成輔社, 卷一, 1976.